

[6·3의왕] 정순욱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의왕서 실현”

등록 2026.05.23 17:55:05 | 수정 2026.05.23 18:10:24



[의왕=뉴시스] 페이스북 캡처.2026.05.11.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순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장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대통령님이 평생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을 의왕에서 이어받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울고 웃으셨던 대통령의 소탈한 미소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던 강직한 신념이 더욱 그림다”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 그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대우받고 상식과 정의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어 “34년간 행정 현장에서 쌓아온 실력과 독심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의왕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나 권력보다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가장 귀하게 받드는 시장이 되겠다”며 “대통령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흔들림 없이 의왕시민 곁으로 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는 부친상으로 상중이며, 발인은 내일(24일) 오전 5시에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